

대림 제 4 주일

기도서 221면 (B해)

제1독서 : 2 사무 7, 1-5. 8b-12
14a-16

제2독서 : 로 마 16, 25-27

복 음 : 루 가 1, 26-38

순정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성탄 메시지

교구장 박 정 일 주교

사랑과 평화의 예수 성탄을 맞이하는
친애하는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교형 자매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과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아기 예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평화에 대해 말씀드렸읍니다만 금년에는 예수 성탄의 다른 측면 즉 빛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땅에 빛을’ 비추자는 원대한 뜻을 세우고 시작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인 1984년이 저물어가는 이 때 예수님은 당신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당신의 빛을 상기하도록 하십니다.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요한 1,9). 우리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요한 1,4-5). 요한 복음의 서곡인 이 말씀과 빛의 찬가를 읽으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 따뜻한 애정으로 말씀을 전배오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또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할 별빛(마태 2,1이하)과, 천사들이 맨처음 성탄 소식을 전해줄 때 목자들을 두루 비친 주님의 영광의 빛(루가 2,8이하)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과연 1984년은 한국 천주교회가 이 땅에 빛을 환하게 비추는 해였습니다. 온세계 교회의 목자이신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우리의 순교 선열 103위를 시성하시므로 한국 천주교회가 이 땅의 빛임을 장엄하게 선포하였고 전세계에 이 빛을 높이 들어올리신 것입니다. 감히 말하자면, 1984년은 103위 성인들의 영광뿐 아니라 무명의 신앙 선조들을 포함한 많은 순교자들과 그 후손인 우리들의 영광까지도 전세계에 드러난 한해였습니다. 이 영광과 기쁨 앞에서 우리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살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미구에 탄생하실 예수님을 태중에 품으시고도 겸손하게 하느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신 성모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루가 1,46-48).

이제 이와 같은 마음자세로 우리는 한국 천주교회 제 3세기를 시작하려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의 빛이 되시기 위해 탄생하셨듯이 우리 순교 성인들이 이 땅에 빛이 되셨고 이제는 우리 자신이 이 땅에 빛이 되는 일에 전념해야 할 시점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교단은 선교 제3세기의 첫해인 1985년을 ‘증거의 해’로 설정하여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루가 16,8 에페 5,8 1테살 5,5)임을 실생활로 증거하고자 권고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시대에도 이 땅에 어둠은 깊게 드리워져 있었읍니다. 반상의 차이, 남녀노소와 빈부의 차이라는 사회적 어둠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어둠이 너무 깊어 어디에서 빛이 비쳐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읍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찾아나섰고 그분을 찾아낸 다음에는 목숨을 바쳐 높이 치켜올려 어둠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과연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고 말씀이 곧 참 빛임을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잘 알았기에 그 말씀을 배워 익히고 따름으로써 그 빛이 계속 타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도 어둠은 여러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국가시책, 정당한 인권의 행사를 가로막는 법적조치,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외시하는 경제정책 등은 이 사회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의 어둠 앞에서 이끈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 생각하고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증거의 해를 맞이하여 용감한 선조들의 후예로서 어둠을 두려워하거나 무기력하게 바라보지만 말고 용감하게 빛을 밝힐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심을 이는 우리로서는 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그 빛이 계속 타올라 어둠을 몰아내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천주교회 시조부터 우리를 돌보아오신 하느님 아버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깊은 감회와 감사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나 본당 공동체로서 뜻깊은 한 해를 보내고, 한국 천주교회가 그 역사의 제3세기를 여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마음을 가다듬고 계실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려 탄생하신 빛의 주님께 여러분 모두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의 은총인 빛과 생명이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새해 인사도 아울러 전합니다.

1984년 성탄



성탄절에 쓴 편지

우리가 이다지도 잘못 살며, 이 시대가 이렇게 거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 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노래하고 싶습니다.

성탄시기가 되면 당신의 많은 백성들이 한 해의 목을 때를 벗기려고 애를 씁니다. 고백성사를 통해서 굶어졌던 마음을 끈게 하려고 줄을 서서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바쁘다고 한 쪽으로 내뺌개쳐 두었던 신자의 의무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당신을 찬미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성전을 꾸미고 성가 연습도 하며 간단한 놀이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찾아 쌀자루를 지고 나서기도 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축복하소서. 평화와 기쁨을 주소서.

그런데 주여, 또다시 마음이 산란하오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연말연시의 불우이웃돕기 때문입니다. 뜻은 좋은데, 하는것이 마음을 뒤집어 엎어 놓고 맙니다. 성금이 또 할당되었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손을 벌립니다. 국민학생은 1백원, 중학생은 2백원, 고등학생은 3백원입니다. 직장에서도 내라고 하지요, 동네에서도 내라고 조릅니다. 대학생은 빠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데모할까 봐서 그랬을까요? 또 있습니다. 학교같은 곳에서는 지정된 방생국과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텔레비전은 요란뽀뽀지근하게 나발을 불겠지요.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는 텔레비전 방생국이 들, 신문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내는 곳도 나누어진답니다. 답답한 저희 심정을 아시겠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여, 답답한 편지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여, 그렇지만 그따위 기발한 착상으로 우리를 웃기는 사람들에게도 축복해 주소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소서. 스쿠루지의 회심(回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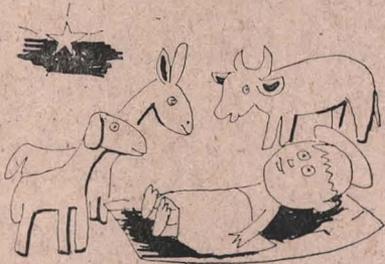
성 (축) 탄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가 2, 14)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숲 정 이 산책

축
성
탄!
!



인간적인 신을 믿지 말고 하느님을 믿자

지 정 환 신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은 하느님을 인간 자신의 모습대로 만들어냈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신을, 학자들은 전지하신 신을, 군인들은 만군(萬軍)의 신을, 장사군들은 대차대조표를 감사하는 신을, 경찰관들은 벌을 즐기시는 신을, 의사들은 병을 주는 신을, 병자들은 무당같은 신을, 사제들은 살전 짐승의 제사를 원하시는 신을 만들어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구세주—즉 자신들에게 권력 승리, 지식, 자유, 영광, 빵, 올림픽 금메달, 건강을 주시는 구세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구세주께서 오셨다.

“그 근방 목자들이 밤을 세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의 영광의 빛이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오늘날 너희의 구세주께서 나셨다. 그 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으로 구약의 시대는 끝나게 된다. 즉 사람이 하느님을 만들어냈던 때가 끝나고 하느님께서 직접 자신을 인간들에게 드러내신 것이다. 신약의 하느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모습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 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인간: “그것!”

천사: “그래, 바로 그분을 기리도록 하여라.”

인간: “똥싸고 방뇨해서 포대기에 싸여 있는 그것을?”

천사: “그래, 그분을 찬미하여라.”

인간: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 그것?”

천사: “그래, 그분을 흠송하여라.”

인간: “엄마 젖없이 못사는 그것을?”

천사: “그래, 그분을 높이 받들어라”

인간: “그것이 과연 찬양받으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입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천사: “바로 그분이 지금 너희 인간의 수준에서 알아볼 수 있는 참된 하느님의 모습이다.”

“여러분은 방금(이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고 묻자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는 사형감이라고 단정하였다 (마르코 14, 64)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김종환齒科醫院

院長 金 種 煥(안드레아)

병원: 전주시 경원동 3가 50-4
T. 6-7744 (주력은행옆 신라당 건너편)

(환)

교구사제 선교사 파견

(송)

파견미사 및 환송식 : 28일 오전 11시
장 소 : 전주 중앙 성당

의방선교회 소속 사제를 제외한 교구 소속 사제로서는 처음으로 정 승현, 김 윤섭, 방 의성 세 분 신부님께서 남미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사로 파견된다.

교구에서는 세 분 신부님들을 위한 파견 환송미사를 갖고 이어 간단한 환송식도 갖도록 하였다. 신부님들은 85년 1월초 출국하시어 우선 멕시코 신학교에서 1년동안 서반아어를 공부하신 후 선교 임지로 떠나시게 될 예정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신부님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세 분 신부님들을 파견하는 마음으로 환송미사와 환송식에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되겠다.

□ 축! 금마성당 축성식

공소 전물을 성당으로 써오던 금마본당(주임-김 반석 신부, 사도회장-민 두희)이 새 성당을 완공하고 축성식을 다음과 같이 갖게 되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성전을 완공한 금마본당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자.

일시 : 12월 23일 오후 2시 장 소 : 금마성당

□ 국군 장병들을 위한 위문금품 모집

교구 사목국에서는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여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국군장병들에게 보낼 위문품 및 위문금과 위문편지를 모집하고 있다. 전달과정에 있어서 중복되고 편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12월 28일까지 일괄 접수하여 교구 소속 군종신부님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기다린다.

□ 교회간행물 이대로 좋은가?

교구에서는 교회 간행물의 보급에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83년 12월에 홍보국에 가톨릭신문 지사와 생활성서 및 경향잡지 취급소를 두었고 그 보급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그 보급현황은 극히 저조한 상태에 있다. 7만여 명의 교구 신자수를 생각한다면 가톨릭신문-420부, 생활성서-520부, 경향잡지-200부라는 숫자는 타교구에 비해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왜 그럴까? 교회 간행물을 구독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다. 교회 간행물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며 또 누가 키우고 발전시켜야 하는가? 새해에는 적어도 한가정에 한가지씩의 교회 간행물을 구독하여 함께 배우고 느끼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염원해 본다.

♣가톨릭 신문을 구독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내년부터 구독료가 월 1천5백원, 6개월 선불 7천5백원, 1년 선불 1만5천원으로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면에서 계속) 과연 참된 하느님보다 인간적인 신을 우리는 쉽게 공경한다. 즉 포대기에 싸여있는 하느님보다 화려한 옷을 입은 신을, 배교파하는 하느님보다 살찐 신을, 피땀흘리는 목수 하느님보다는 화장을 예쁘게 한 신을, 휠체어를 타는 하느님보다 방탄차를 탄 신을 쉽게 따른다.

성탄날은 바로 우리들이 만들어낸 신이 죽고 참된 하느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다. 그러나 아무리 참된 하느님이시더라도 우리가 이 하느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인간적인 신을 공경한다면-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외치는 군중의 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장애자 지도신부>

요심이 (594) 김병오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의학박사 소흥영(요한)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병원 ☎ 3668
자택 ☎ 8120

- 혼수(회갑)웃감 | 도
- 특수 파티복 | 매
- 고급 칠구류 | 상
- 각종 술 일체 | 상
- 커튼지 | 상

서울주단
☎ 0453 05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길(안토니오)
박(베로니카)

84학년도 겨울방학 미술 특강
(원아모집) (유치반·국교반)
※ 1학년 그림일기 지도 ※ 학원버스 운행
판인 **해돋이 미술 교육 학원**
효자동 우진아파트 입구 (75) 4374
원장 김 순 주(베로니카)

약에 관해서 알고저 할 때
전주 시민약국
중앙성당 뒷편
☎ 4-0009 3-3338

(4) 순 정 이



- 84년 송년 은혜의 밤 및 철야기도회: 29일 오후 9시~30일 오전 4시30분, 전주 효자동성당
 - M·E 신구 임원회의: 28일 오후 5시30분, 장소-센타, 준비물-나눔노트·미사준비·인수인계 서류
 - 시민강좌: 28일 오후 8시, 제목-인류 구원을 위한 새물결, 강사-함세웅 신부, 장소-중앙성당
 - 꾸리아 단장회의: 1월 3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대상-각 꾸리아 단장
- ※ 전화번호 변경: 고창성당(☎ 2024)
 ※ 휴무 관계로 다음주 순정이 공지사항은 24일까지 도착되어야 합니다
 □ 축! 영명: 성 스테파노(26일)-김 치삼·김 환철·나 춘성 신부님
 성 요한 사도(27일)-서 석구·김 병환·김 기수·전 중복 신부님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①

(중암)

전화 ①71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김인협

- 축! 영세: 금일 공식미사 중
 - 성탄미사안내: 24일-자정미사, 25일-9시·10시30분 오후 7시
 - 재야 자정미사: 31일 밤 12시(오후 7시미사 없음)-금암동 성당에서
 - 축! 영명: 나춘성(스떼파노) 26일, 축하식-금일
 - 감사: 성심부녀회-성당 방석·장례를 카바 봉헌
 - 애령회 정기총회: 28일 어머니미사 후
 - 유아세례: 28일 8. 상지회 송년회: 25일
- 지난주 봉헌금: 1,146,992원 교무금: 9,776,828원
 감사헌금: 김마텔로-1만원, 익명-3만원, 정마오로-5만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②7032 보좌 신부 이성우
 사도 회장 이홍재

- 축! 성탄행사 안내 24일: 전야축제-저녁 7시부터 구유예절 및 전야미사-저녁 11시, 25일: 어린이미사-오전 9시, 성탄미사-오전 10시30분, 공소 합동미사-오후 3시(다리리공소), 저녁미사-저녁 6시30분, 모두 참여하여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 축! 영세식: 오늘 오후 3시,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 가족대할 성가경연대회: 24일 저녁 9시부터 참가할 가정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 헌옷 전시바자회: 오늘부터 25일까지
- 독지가를 찾음: 성탄전야 행사의 시상상품 기증자
- 대의원 총회: 30일 공식미사 후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양상연
 사무(72)6259 사도 회장 김요열

- 축! 성탄영세: 오늘 오후 2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성탄경축행사(안내): ①24일-병자봉성체(오후 2시) 사랑의 선물 전달(저녁 8시 각Pr.), 전야제(밤 9시 단장제 성가 및 장기자랑), 자정경축미사(11시30분) 한밤축배(12시30분-성심부녀회 봉사), ②25일-성탄 대미사(9시·10시30분·저녁 7시), 자녀들의 축연(밤 8시·아동·학생), 떡국잔치(밤 10시30분·까리파스회 봉사)
 - 주일학교 방학: 23일 오후 3시
 - 청년연합회 정기총회: 30일 오전 10시(유치원)
 - 진북유치원 원아모집 중: 적극 협력 바랍니다
 - L.M. 연중전목회: 85년 1월 5일
 - 금주 청소안내: 청년연합회(29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500,610원 교무금: 1,759,5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영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성원

- 축! 성탄: 전야미사-24일 오후 7시, 자정미사-25일 0시·오전 10시30분·저녁 7시
- 성탄행사: 24일 저녁 8~11시
- 84년도 교무금 완납바람: 봉투에 미수액 기재되었음
- 22일 영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 예비자교리는 1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 은풍기헌금: 김기문-1만원, 익명-5만원, 윤판용-2만원, 고인순-5천원, 최정해-5천원, 성우회-20만원, 누계-1,574,000원
- 금주 성당청소: 월-다위의 탑, 토-새벽 차주: 월-황금궁전, 토-이황의 빛이신 모후
- 금주전례: 해설-황관금, 독서-①조성호 ②장기연 자정미사: 해설-유덕영, 독서-①김성원 ②양규철 25일 공식: 해설-김인식, 독서-①정동민 ②정운주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조영호 ②장영자
 □ 지난주 봉헌금: 158,580원 교무금: 763,600원

(서학동)

신부 ①8307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②276번 사도 회장 김낙균

- 축! 성탄: 24일-자정미사, 25일-오전 10시(공식미사), 오후 3시(주일학교), 7시(저녁미사)
 - 메시아의 밤: 24일 저녁 7시-주일학교, 중·고생, 요나회 성탄 경축모임
 - 본당의 날 행사: 30일, 경노찬치(요나회 주최)
 - 판공성사: 24일 오전 10시~12시, 오후 3시~5시
 - 감사합니다: 성심회-2만원
 - 성전 보수공사 헌금: 2천5백원-박용수, 5천원-박형근·이분례, 4천원-박순덕·정덕례, 2천원-박봉순
 - 다음주 전례: 해설-김상근·문미옥
 독서-①이정민 ②김나섭, 기도-선교부
- 지난주 봉헌금: 407,475원 교무금: 1,354,500원

(순정이)

전화 ①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②9567 사도 회장 김수립

- 애령회: 공식미사 후(간부는 25일 공식미사 후)
 - 짜교우 초대잔치: 24일 오후 8시
 참석대상-①짜교우 부부와 ②친한교우
 - 판공성사: 23일-국민학생, 24일-기타(20~23시)
 - 성탄전야제: 초·중·고 발표(오후 8시~11시)
 - 성탄미사: 자정미사-24일 12시(새벽미사 없음), 공식미사-25일 10:00, 주일학생-15:00, 저녁미사-25일 18:30
 - 축! 결혼: 23일 11시30분
 신랑-송훈식, 신부-송덕순(안나)
 - 구유예절: 24일 자정미사 후
 -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김남곤·김영희
 24일 자정: 해설-정주복, 독서·기도-선종현·신덕순
 25일 10시: 해설-홍성조, 독서·기도-김정주·이순주
- 지난주 봉헌금: 205,630원 교무금: 743,200원

(전동)

신부 ①6208 주임 신부 김치삼
 전화 사무 ②3222 보좌 신부 정영호
 수녀 ③8347 사도 회장 김양모

- ☆ 축! 영명: 25일 오전 11시 축하식, 축하연회 12시
- 성탄의 밤: 24일 밤 9시~11시, 어린이·학생·청년 총출연 솜씨자랑 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 성탄미사 안내: 24일-자정미사 12시, 25일-8시30분·10시·오후 3시·7시
 -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오후 1시30분
 - 성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 조경사업 기금마련 일일찾집: 24일 5시~25일 정오까지, 주최-주일학교교리교사회, 장소-주일학교교실
 -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최병례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이영희, 독서-①김병오 ②정진훈
 저녁미사: 해설-고유희, 독서-①최종만 ②이훈
- 지난주 봉헌금: 802,100원 교무금: 2,361,00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주임 신부 박중신
 수녀 2-4804 사도 회장 이교성
 사무 2-0915

- 성탄전례: 자정미사·영세식-24일 저녁 10시부터, 25일-10시30분 미사만 있음
 - 초청신부 고해성사: 오늘 9~12시30분·저녁 7~9시
 - 송년 은혜의 밤(철야기도): 29일 9시부터 금주 수요기도회 없음
 - 자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유아세례: 30일 오전 10시
- 지난주 봉헌금: 404,420원 교무금: 937,500원